

LCD 패널도 “친환경 인증 시대”

LG필립스LCD, 환경부 EDP 인증제도 획득 ... EU RoHS 기준 부합

LG필립스LCD가 LCD 생산기업 최초로 TFT-LCD(초박막액정표시장치) 패널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인증(EDP)을 받았다고 11월11일 밝혔다.

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37인치 LCD 패널로 LG필립스LCD는 친환경성 제고를 통해 갈수록 엄격해지는 유럽연합(EU),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유해물질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LG필립스LCD의 37인치 LCD 패널은 제품 경량화 및 부품수 최소화로 자원 소모량을 줄여 환경부담을 줄였고 EU의 환경규제(RoHS) 기준에도 부합하는 제품이다.

LG필립스LCD 김성호 환경기술담당은 “통합제품 환경정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인증 모델을 늘리고 녹색구매를 비롯한 그린마케팅 확대, 환경친화적 원료 사용 및 제품개발에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EDP는 원자재 채취, 생산, 소비,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<전과정 평가>를 거쳐 인증을 주는 환경부의 인증제도이다.

<화학저널 2004/11/11>